

사이버대학교 학습자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연구

이 성 태* 이 종 원**

서울사이버대학교

사이버대학교의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 생성형 AI 도구의 급속한 확산은 학습 효율성 향상을 가져오는 동시에, 학습 윤리와 자기주도성 약화라는 문제를 동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학습자의 AI 활용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외 대학의 AI 활용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비교하여 윤리적·자기 주도적 활용 모델을 제시한다. 사이버대학 학습자들은 에세이 작성과 토론 게시글 초안 생성에서 AI 사용 비중이 높았으며, 활용 정도에 따라 도구형·의존형·수비형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국내외 주요 사례 및 대학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결과, 강의계획서에 AI 허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활용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비판적 사고 및 AI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반하여 학습자와 교수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AI 윤리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연구 내용을 포함하는 설문조사와 교육 활용 전략도 제안한다.

주요어 : 생성형 AI, 사이버대학교, 학습 윤리, 생성형 AI 리터러시, 자기주도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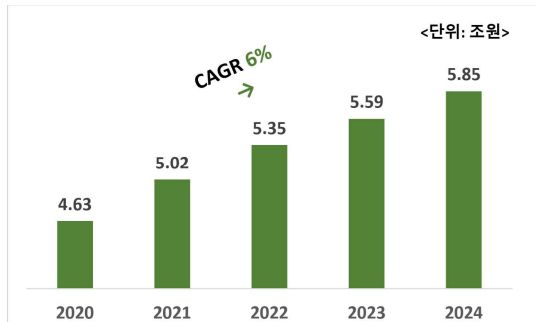
* 주저자: 이성태/서울사이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에듀테크연구소장)/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Tel: 02-944-5113/E-mail: stlee@iscu.ac.kr

** 교신저자: 이종원/서울사이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조교수/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Tel: 02-944-5112/E-mail: jlee@iscu.ac.kr

I. 서론

1. 연구 배경

사이버대학교는 다양한 나이, 직업, 생활환경을 지닌 학습자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고등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 형태로, 최근 그 규모와 사회적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이버대학교는 전면 비대면 수업, 콘텐츠 중심 비실시간 학습, 오픈북 기반 평가 방식 등으로 대표되며, 이는 전통적인 대면 중심 고등교육기관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교수-학습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1] e-Learning 매출액 추이(최무이 2025)

2022년 이후 본격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 확산하면서, 사이버대학교의 이러한 교육 및 평가 방식에 중대한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ChatGPT 등 대형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에 기반한 도구들은 학습자들의 에세이, 토론, 퀴즈, 과제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습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평가의 신뢰성과 변별력 약화라는 교육적 도전 과제를 동시에 제기하는 중이다.

2. 문제 제기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AI로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토론 게시물까지 AI가 대신한다는 우려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수자에게 학습자의 고유한 사고력과 과제 수행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더 나아가, 사고 과정이 배제된 결과 중심 학습과 학습 목표와 무관한 산출물의 양산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생성형 AI는 적절히 활용될 때 정보 탐색, 글쓰기 초안 구성, 언어 표현력 향상, 자기 주도적 학습 촉진 등 다양한 교육적 가능성을 지닌 도구이기도 하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 수학, 교육, 사회복지 등 분야에서 전 세계 노동자의 4분의 3 이상이 업무상 도움을 받을 것이라 한다(강지연, 2024).

따라서 생성형 AI는 교육 현장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윤리적 통제와 비판적 활용이 병행될 때 교육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생성형 AI의 교육적 효과를 수용하면서, 학습자의 윤리적 책임과 자기주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전략과 정책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생성형 AI 확산이라는 변화 속에서 사이버대학교가 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교육의 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 대응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의 생성형 AI 활용 실태와 인식, 그리고 활용 방식의 유형을 분석한다. 둘째, 학습자의 생성형 AI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습 윤리 문제와 평가의 신뢰성 저하 문제를 구조적으로 정리한다. 셋째, 국내외 사이버대학 및 온라인 교육기관의 생성형 AI 활용 정책을 분석한다. 넷째,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윤리적이고 실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사이버대학교에 적합한 정책 방향과 교육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생성형 AI와 사이버대학의 변화

생성형 인공지능은 기존의 규칙 기반 또는 분류 중심 AI와 달리,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코드 등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모델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OpenAI의 GPT 시리즈, Anthropic의 Claude, Google의 Gemini 등이 있으며, 이들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대형 언어 모델로 방대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 인간 언어를 이해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보유한다(Floridi & Cowls, 2019; OpenAI, 2023).

이러한 생성형 AI는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UNIST 교수학습센터, 2023; Park & Lee, 2023). 예를 들어 학습자의 에세이 초안 생성 또는 첨삭, 긴 텍스트의 요약 제공, 주제별 질의응답 서비스 제공, 파이썬 등 코딩 과제의 자동 작성과 디버깅 지원 등의 활용은 학습자의 정보 접근성과 생산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독립적 사고력 약화나 학습 태도 변화라는 부작용도 수반할 수 있다.

한편, 사이버대학교는 전통적인 대면 교육기관과는 달리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성인 학습자들이 주로 재학하는 특징을 가진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3). 특히 20대부터 60대 이상의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분포하며, 직업적으로는 재직자, 경력 단절자, 전업주부, 프리랜서 등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공존한다. 이들은 생애 재교육, 직무 전환, 자기계발 등의 동기로 학습에 참여하며, 기존의 정규 고등교육과는 다른 동기 구조와 학습 전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면 비대면 교육 환경은 학습자에게 높은

수준의 자기주도성을 요구한다(장유정 외, 2024). 오프라인 출석이나 실시간 피드백 없이도 학습을 지속해야 하므로, 시간 관리, 동기부여, 학습 전략 수립 등 자기조절 학습 역량이 학업 성취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성형 AI와 같은 학습 지원 도구의 도입은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대체하거나 약화시킬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결국 사이버대학교 학습자들의 다양한 배경과 자기주도 학습 환경을 고려하면, 생성형 AI 활용은 의미 있는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주요 문제점 및 윤리적 이슈

생성형 AI의 확산은 사이버대학교의 교육환경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왔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과 윤리적 이슈가 드러나고 있다.

첫째, 평가의 신뢰성 붕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생성형 AI가 작성한 텍스트는 인간 학습자의 사고를 모방하기에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교수자는 학생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생성형 AI가 생성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이로 인해 과제나 시험의 평가 기준이 흐려지고, 교육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한다.

둘째, 자기주도성의 저하가 우려된다. 이는 특히 비대면 환경에서 더욱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다. 학습자가 생성형 AI 도구에 반복적으로 의존하게 될 경우, 사고력과 창의력은 점차 약화되고, 학습의 내면화 과정 없이 결과 제출만을 목표로 하는 학습 태도가 굳어질 수 있다.

셋째, 공정성 문제이다. 일부 학습자는 생성형 AI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는 반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학습자는 생성형 AI 사용법 자체에 익숙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 기회의 불균형,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김경희 & 정혜승, 2023).

넷째, 교육의 본질적 의미 약화가 우려된다. 과제 수행이나 토론 활동이 학습을 위한 과정이 아닌 단순한 결과물 제출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 교육의 본래 목적인 사고력 증진, 문제해결력 향상, 자기성찰 등의 목표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윤리적 쟁점들은 단순히 부정행위 방지 차원의 대응을 넘어, 생성형 AI 시대의 새로운 학습 윤리 재정립과 평가 체계 혁신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III.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분석

1. 국외 사례

1.1 Arizona State University Online

Arizona State University(ASU)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립대학 중 하나이다(Timoth Peck, 2025, July 8, 20. Biggest Colleges in the U.S., CollegeVine). 온라인 학위과정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 교육 플랫폼인 ASU Online을 운영하면서, COVID-19 이후 디지털 기반 교육을 신속하게 고도화하였다. ASU는 생성형 AI 도구의 사용에 있어서, 생성형 AI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학습자의 윤리적 책임성과 교수자의 자율적 판단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활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ASU의 생성형 AI 활용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모든 강좌의 수업 계획서(syllabus)에 AI 도구 활용 가능 여부와 허용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여, 학습자가 수업 초기부터 활용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맞는 학습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수자는 수업의 특성과 평가 방식을 고려하여 생성형 AI 활용을 허용하거나 제한한다. 실제로 인문·사회계열 과목에서는 비교적 엄격한 제한을, 데이터 과학·공학 계열 과목에서는 실용적 활용을 장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한 결과물은 학습자가 그 사실을 명시하고 검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규정으로 명문화하였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 윤리 교육을 강화하면서, AI 리터러시 교육 모듈을 필수 또는 선택 과목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해당 과목에서 교육하는 내용에는 생성형 AI의 편향성, 설명 가능성, 저작권 문제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단순히 생성형 AI 결과물을 수용하기보다, 책임 있는 태도로 AI를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SU는 생성형 AI를 금지 또는 단순 통제에 대안으로 보지 않고, 학습의 동반자이자 사고력 확장의 도구로 인식하는 교육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ASU 정책이 사이버대학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과목별 특성에 따른 차등적 생성형 AI 활용 정책, 체계적인 생성형 AI 리터러시 교육, 생성물의 투명한 표기와 책임 구조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1.2 edX

edX는 Harvard 대학교와 MIT가 공동으로 설립한 대규모 온라인 공개수업(MOOC) 플랫폼이다. 현재 전 세계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대학과 기업의 강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면서, 학습 윤리를 중시하는 체계를 엄격히 구축하고 있다.

특히 edX는 'Honor Code(명예 규약)'를 통해 생성형 AI를 포함한 제3자 도구의 무단 사용을 학습 윤리 위반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edX는 플랫폼 차원에서 생성형 AI 도구 활용에 대해 보수적이고 제한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모든 과제와 시험은 학습자의 독자적 사고와 노력에 기반하며, 생성형 AI 도구의 활용은 사전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부분 강좌에서 AI 사용을 엄격히 제한 또는 전면 금지한다. 만약 해당 강의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였는데

ChatGPT나 Claude와 같은 AI 도구 사용이 발견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다만 강좌별로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학습자는 수업에서 제공되는 안내문을 통해 해당 강좌의 생성형 AI 활용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신뢰성 있는 온라인 학습 자격을 보장하기 위해 생성형 AI 사용에 대해 강력한 윤리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국내 사이버대학교는 이러한 edX의 사례를 참고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습자 명예 규약 도입 및 생성형 AI 사용 시 사전 명시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3 Coursera

Coursera는 Stanford 대학교 교수진이 설립한 글로벌 온라인 학습 플랫폼으로, 다양한 대학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 고등교육 수준의 콘텐츠를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다. Coursera는 edX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지만, 교육적 책임을 중시하는 방향을 취한다.

특히, Responsible AI Use in Learning Environments라는 정책을 마련하여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를 조성 중이다. 첫째, 학습자가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는 결과물을 자가 검토 및 수정하고, AI 사용 사실을 공개할 것을 권장한다. 둘째, AI는 요약, 키워드 도출, 개념 설명 등 학습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AI의 제안을 참고하되 최종적인 판단과 해석은 학습자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셋째, 교수자는 해당 강좌에서 생성형 AI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고, 이를 수업계획서와 과제 지침에 반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학습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생성형 AI 활용이 명확한 윤리적 기준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Coursera는 AI 리터러시와 윤리적 사고 함양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일부 강좌를 통하여 제공한다. 학습자의 도구 활용 능력과 책임 의식을 동시에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Coursera의 사례는 국내 사이버대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순히 생성형 AI 활용 여부를 논의하는 차원을 넘어, 각 강의의 목표와 교육 철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생성형 AI를 설계·통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강의 단위의 유연한 정책 수립, 학습자 중심의 책임 모델 제안, 반성적 평가 설계 등

<표 1> 국내 대학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분석

대학	K-C대	Y대	S1대	S2대	I대	J대	H-C대	K대	U대
항목									
활용 목적 명시	✓	✓	✓	✓	✓	✓	✓	✓	✓
교수자 책임 강조	✓	✓	×	✓	✓	✓	✓	×	✓
학습자 책임 강조	✓	✓	✓	✓	✓	✓	✓	✓	✓
허용/금지 범위 명시	✓	✓	✓	✓	✓	✓	✓	✓	✓
AI 사용시 출처 명시	✓	✓	✓	✓	✓	✓	✓	✓	✓
윤리 교육 연계	✓	×	×	✓	△	✓	✓	×	✓
활용 사례 제공	△	✓	✓	✓	×	△	△	×	✓
프롬프트 명시 요구	×	✓	✓	✓	×	✓	✓	×	✓
강의계획서 반영 권장	✓	✓	×	✓	×	✓	✓	×	✓
AI 의존 경고 문구	✓	✓	✓	✓	✓	✓	✓	✓	✓

✓ : 적용, △ : 일부, × : 미적용

은 주목할 만한 요소이다.

1.4 Ohio State University

Ohio State University는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산하에 ASC Office of Distance Education (원격교육 사무실)을 두고 있다. 학생들의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며, 과제 수행 과정에서 생성형 AI 도구와 관련한 사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지침을 제공한다.

학업 부정행위 위원회가 제정한 대학 차원의 생성형 AI 활용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교수자의 구체적인 승인 없이는 실험실, 현장 실습, 장학금 또는 과제 수행 시 허가받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글, 아이디어 또는 기타 타인의 저작물을 단어 그대로 사용하거나 의역하지 않고 제출할 수 없다.

특히, 교수자의 명시적이고 명확한 허가를 받았을 때 한하여, 해당 강의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교수자가 명시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한, 생성형 AI 도구는 과제 수행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일부 교수자는 특정 목표를 위한 학습

환경에서 생성형 AI 도구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생성형 AI가 이미 널리 활용되는 현재 시점에서, 결과가 아닌 수행 과정 수준에서의 생성형 AI 활용은 필요할 수 있다. 물론 도구 유형, 도구 기능, 적용 활동, 적용 방법, 금지 기능 등과 관련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허용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과제의 성격, 학습 활동의 목적, 그리고 활용되는 AI 도구의 종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2. 국내 사례

<표 1>에서 국내 주요 대학들의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이에 더하여 <표 2>에서는, 개별 조사한 국내 대학의 항목별 종합하여 강한 통제형, 유도 선택형, 학습 도구형, 사례 중심형의 네 가지 형태로 크게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징 및 장단점을 기술하였다. <표 1>과 <표 2>를 종합하여 볼 때, 대학별로 표현 방식과 세부 지침에서 차이를 보이나,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된 핵심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

첫째, 생성형 AI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제시된다. 대부분의 대학은 ChatGPT, Claude, Gemini 등 대표적 생성형 AI 도구를 예시로 들면서, 이들이 학습·글쓰기·코딩·요약 등에 활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설명한다. 이는 학습자가 도구의 기능과 한계를 이해한 뒤 적절히 활용하도록 도와준다.

둘째, 책임 있는 활용의 원칙을 강조한다. 학생에게는 자기주도성과 학문적 정직성을 전제로 한 사용을 요구하며, 생성형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무비판적으로 제출하거나 그대로 활용하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안내한다. 교수자에게는 과제·평가 설계 시 생성형 AI 도구의 사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공유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셋째, 투명성 확보와 출처 표기를 요구한다. 대부분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경우, ‘생성형

<표 2> 국내 대학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대학	특징 및 장단점
강한 통제형	K-C대, S1대	- AI 사용 전면 금지 / 제한 강조
		- 학문적 진실성 확보 용이
유도 선택형	J대, U대, H-C대	- AI 활용 교육 기회 부족
		- 교수자가 활용 범위 조절
학습 도구형	S2대, Y대	- 유연성 높아 맞춤형 수업 설계
		- 혼란 유발 가능
사례 중심형	Y대, U대	- 협력 도구로 AI 활용 적극 권장
		- 자기주도학습 촉진 가능
		- 과도한 의존성 우려 존재
		- 실제 활용 사례 제공
		- 실천적 이해와 적용 용이
		- 일반화 어려움

AI 도구 사용 여부를 명시'하거나 '생성형 AI 보조 작성 문구'를 삽입하도록 권장한다. 이는 학문적 진실성을 유지하고 결과물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넷째,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위험성과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모든 가이드라인은 AI의 편향성, 사실 오류 가능성, 과도한 의존 등 부작용을 경고하며, 학습자가 도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특히 학습 과정보다 결과만을 중시하거나 창의적 사고 없이 생성형 AI 출력을 복제하는 행위가 학습 본질을 훼손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다섯째, 수업 운영과 평가 설계의 재조정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수의 대학은 강의계획서에 생성형 AI 활용 방침을 명시하도록 권장하며, 일부는 초안과 수정안을 함께 제출하게 하거나 생성형 AI 활용 과정을 분석하도록 하는 등, 생성형 AI 활용을 전제로 한 평가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향후 교수자 역량 강화와 교육 설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표 3> 국내 대학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보완사항

제안 분야	보완 내용
AI리터러시 구성	- 표 형태로 구성요소 구조화 - 정보 검색, 생성물 해석, 편향 탐지, 출처 확인, 프롬프트 구성 등
디지털 역량	- AI 사용 역량 진단도구 도입 - 다양한 연령·배경 고려한 디지털 격차 완화 대책 마련
교수자 전략	- AI 활용 프레임워크 제시 - 과제 설계 예시나 평가 기준
정책 비교 분석	- 해외 우수 가이드라인 활용 - ASU Online, edX 등 사례 참고
수업 운영 지침	- 강의계획서 반영 - 학습윤리 교육 연계 명확화
AI사용 추적방법	- 사용 이력 문서화 - AI답변, 스크린샷 등 예시 수록

이러한 공통점들은 단순히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형 AI를 학습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사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에서 살펴본 기존 국내 대학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추가 보완할 점을 <표 3>과 같이 제안한다. 생성형 AI의 기능과 한계에 대한 이해는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요소이다. 학습자는 AI 도구를 단순히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물의 신뢰성·정확성·편향 가능성 등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결과물은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고 AI 사용 여부를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학문적 정직성과 교육적 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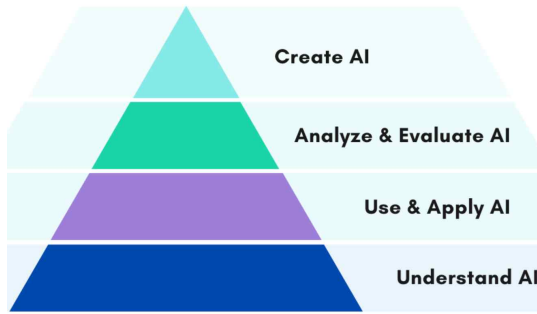
무비판적으로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그대로 제출하거나, 자기 성찰 없이 반복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는 학습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 각 대학은 이에 대한 경계심을 공통적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학습자는 생성형 AI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되, 최종 결과물에 있어서는 자신의 사고와 판단을 중심에 두는 태도가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정답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 과정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된다. 이를 위해 초안과 수정본을 함께 제출하게 하거나, 자기 평가와 피드백 과정을 포함한 과제 설계를 제안한다. 이러한 방식은 생성형 AI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자의 사고 전개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국내 대학들은 생성형 AI를 단순히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보다 학습의 도구로 수용하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활용 문화를 정립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비대면 교육기관에서 학습의 질을 유지하고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IV. 사이버대학 학습자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1. 생성형 AI 윤리와 AI 리터러시의 필요성



[그림 2] A Framework for AI literacy (Hibbert, M. 2024)

생성형 AI 시대에는 학습자의 윤리 개념을 기존의 틀에서 확장하고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표절이나 대리 작성과 같은 명확한 부정행위가 주된 문제였으나, 오늘날 생성형 AI는 글쓰기, 요약, 코드 작성 등 다양한 학습 과제에서 보조자 혹은 대체자로 기능하면서 그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예컨대 AI가 작성한 문장을 단순히 일부 수정하거나 거의 그대로 제출한다면, 이러한 행위가 학습자의 고유한 성취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순히 생성형 AI 도구 사용 기술만이 아니라, AI의 생성 원리와 한계, 편향성을 이해하고 결과물을 검토·수정하며 인간 고유의 사고와 창의성을 유지하는 능력, 즉 AI 리터러시(AI Literacy)가 필수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AI의 기본 동작 원리에 대한 이해, 생성 결과의 사실 검증 능력, AI 활용 범위에 대한 자기 규정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

반대로 이러한 리터러시가 부족한 학습자에게 생성형 AI에 대한 의존적 태도가 고착화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학습 내면화 실패, 창의성 저하, 책

임감 약화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사이버대학교를 비롯한 고등교육 기관은 단기적 학습 효율보다 장기적 학습 역량을 우선시하는 방향에서 생성형 AI 윤리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표 4> 생성형 AI 리터러시 구성 요소

구성요소	세부 역량 및 예시
정보탐색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한 프롬프트 설계 정보 수집 및 재구성 예) AI에 “보고서 초안” 생성 요청
생성물 해석 및 평가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성 텍스트 정확성·논리성 검토 인용 필요성 판단 예) 생성된글 직접 수정/사실 확인
편향 및 오류 탐지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편향 인식 사회문화적 왜곡 감지 예) 성별·인종·직업 고정관념 탐지
책임있는 활용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용 여부 명시 과제 목적과 부합하도록 사용 예) 보고서에 “AI 일부 활용” 표기
자기조절 학습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의존 최소화 결과물에 자신의 사고 반영 예) AI초안 바탕으로 수정·보완

이에 국내외 선행연구(UNESCO, CODES, Ng et al., 2021 등)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리터러시를 다섯 가지 핵심 요소로 구조화하여 <표 4>와 같이 제안한다. 생성형 AI 리터러시는 단순한 도구 활용 능력을 넘어,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생성된 콘텐츠의 진위를 평가하며 이를 책임 있게 활용하는 복합적 역량을 의미한다. 특히 생성형 AI와 같은 언어 생성 시스템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디지털 리터러시보다 훨씬 정교하고 비판적인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표 5> 학습자용 가이드라인

항목	권장 지침
과제 작성	-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 글 구조 점검 / 참고 자료 요약
	- AI는 아이디어 정리, 논리 흐름 점검 / 피드백 목적에 국한하여 활용
	- 최종 제출물은 학습자가 직접 작성 및 본인 언어로 재구성
	- AI 사용 내역 명시 필수
발표	- 발표 초안 구성 / Q&A 예측 및 응답 연습 / 내용 확인 및 정리
	- 직접 발표 연습이 필수
시험 응시	- 시험 전 이해도 점검 / 개념 정리
	- 개방형 시험 포함 AI 사용가능 여부는 명확히 사전고지 (교수 지침)
	- 미승인 사용은 부정행위로 간주
토론 및 게시판	- 주제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정리
	- AI 생성 문장 그대로 사용 금지
자기주도 학습	- 자신의 경험, 의견, 비판적 사고를 포함하여 자율성과 창의성 반영
	- 모르는 개념 질문-/ 학습 요약
인용 및 투명성	- 편향 문제를 인식하고, 복수 자료 검토
	- AI 활용 사실 명시하여 투명성 확보
	- 과제 본문 또는 참고문헌에 명시

2. 학습자용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생성형 AI는 사이버대학교 학습자에게 학습 접근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학습 윤리, 평가 신뢰성, 자기주도성 저하 등 다양한 교육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순히 AI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차원을 넘어, 윤리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활용을 중심으로 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표 5>에서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은 학습 설계와 평가 구조의 재구성을 통해 생성형 AI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혁신을 지향한다.

첫째, 도구에서 파트너로의 전환이다. AI를 단순한 생산성 도구로 한정하기보다, 학습자의 자기 성찰과 비판적 사고를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디지털 동반자’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기주도성 중심의 설계이다. 과제와 평가 방식은 학습자의 탐색, 수정, 자기평가 과정을 강화하여 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형평성과 접근성의 고려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의 차이로 인한 학습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수자는 생성형 AI 활용법에 대한 사전 안내와 지속적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지보다는 투명성이다. AI 사용을 단순히 억제하기보다, 언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여 학습자의 고유한 기여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단순히 생성형 AI 활용 기술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생성형 AI 시대의 올바른 학습자상’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사이버대학교는 보다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인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습자용 생성형 AI 활용 지침

생성형 AI가 단순한 ‘도움’에서 ‘대체’로 변질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윤리적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첫째,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은 콘텐츠는 출처와 사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투명성이 필요하다. 둘째, 생성형 AI 결과물과 학습자의 독창적 사고가 어느 정도 결합되었는지 확인 가능하도록 자기 성찰과 메타인지적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과제의 본래 목적과 학습자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표 6> 학습자용 생성형 AI 활용 지침

항목	설명
출처 명시	- AI 도움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명시 (예: “ChatGPT(2025.8.7.) 활용”)
비판적 사고	- AI 제공 정보를 검증하고,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
교수와의 합의	- 과제, 토론, 시험 등에서 AI 사용 여부는 교수자의 지침에 따름
표절 금지	- AI가 만든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표절 또는 부정행위로 간주
개인정보 보호	- AI에게 개인정보, 학번, 민감한 데이터 입력 금지

학습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활용 지침을 <표 6>과 같이 제안한다. 이러한 윤리 가이드는 단순히 도구 사용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습자가 AI를 비판적 사고와 자기 성찰을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V. 설문지와 교육 활용 전략

생성형 AI의 실제 활용 현황과 학습자 인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설문조사 항목을 설계한 후, 실천 전략을 제시한다.

<표 7>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생성형 AI 활용 실태 설문지

1. 기본 정보

1-1. 성별

- ☐ 남
☐ 여
☐ 응답하고 싶지 않음

1-2. 연령대

- ☐ 10~20대
☐ 30대

- ☐ 40대
☐ 50대
☐ 60대 이상

1-3. 직업

- ☐ 재직자
☐ 취업 준비생
☐ 전업 주부
☐ 기타 ()

1-4. 전공 분야

- ☐ 인문사회
☐ 공학/IT
☐ 예체능
☐ 자연과학/보건
☐ 기타 ()

2. 생성형 AI 사용 경험

2-1. 최근 6개월간 ChatGPT 등 생성형 AI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 (설문 종료 또는 활용 동기 항목만 진행)

2-2. 어떤 AI도구를 사용했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 ☐ ChatGPT
☐ Claude
☐ Gemini (Bard)
☐ Bing AI / Copilot
☐ 기타 ()

2-3. 어떤 학습 활동에 AI를 활용했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 ☐ 레포트/과제 작성
☐ 토론 게시글 작성
☐ 퀴즈/시험 응답
☐ 강의 내용 요약
☐ 실습/코딩/문제 풀이
☐ 기타 ()

3. 생성형 AI 활용 수준 및 인식

[5점 척도: 매우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다]

3-1. 나는 생성형 AI를 학습 활동에 자주 활용하고 있다.

3-2. 생성형 AI는 나의 학습 효율성을 높여준다.

3-3. 생성형 AI 없이 과제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다.

3-4. 생성형 AI의 답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활용한다.

3-5. AI가 만든 내용을 그대로 제출한 적이 있다.

3-6. 생성형 AI가 학습자 사고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7. 생성형 AI의 사용은 교수자나 학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

4. 자기주도성과 윤리 의식 관련 문항

4-1. 생성형 AI 사용 시 다음 중 본인의 태도와 가장 가까운 것은?

- ☐ 최종 결과물은 반드시 내가 직접 수정하거나 재작성한다.
- ☐ 초안 작성, 요약 등에만 참고용으로 활용한다.
- ☐ 대부분 AI가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활용한다.
- ☐ 기타 ()

4-2. 생성형 AI로 작성된 내용을 제출할 때, 출처 또는 AI 사용 사실을 밝힌 적이 있습니까?

- ☐ 예
- ☐ 아니오
- ☐ 관련 규정을 잘 모른다

4-3. 생성형 AI를 학습 도구로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명확한 교수자 지침
- ☐ 윤리 교육
- ☐ AI 리터러시 교육
- ☐ 학습자 간 논의 및 사례 공유
- ☐ 기타 ()

5. 서술형 문항 (선택)

5-1. 생성형 AI 활용 경험 중 가장 유익했던 사례를 서술해 주세요.

5-2.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해 교육적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기술해 주세요.

1. 생성형 AI 활용 설문지

현재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예상한다. 긍정적 활용의 경우, 생성형 AI는 학습자의 부족한 글쓰기 역량을 보완하는 피드백 도구로 작동하고, 학습 주제에 대한 사전 이해를 돕는 학습 파트너로 활용된다. 특히 중장년층 학습자에게는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 탐색의 어려움을 줄여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정적 활용의 경우, 생성된 문장을 그대로 과제에 제출하거나 출처 없이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할 수 있다. 학습자는 학습 내용을 깊이 이해하거나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생략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자율성과 학습 동기의 약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설문 항목은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설문 항목은 <표 7>과 같으며, 생성형 AI 도구의 사용 빈도, 활용 영역(과제, 시험, 토론 등), 사용 동기, 그리고 활용에 따른 이점과 부작용 인식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술형 과제 작성, 토론 게시물 초안 작성, 시험 및 퀴즈 응답과 같은 활용 영역을 제시하며, 오픈북 평가나 프로젝트형 시험에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구성하였다. 또한 사용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표현력 향상’, ‘시간 절약’, ‘아이디어 도출’, ‘신뢰성 부족’, ‘사고력 저하’, ‘양심적 부담’ 등의 응답 선택지를 제공한다.

추후 실제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한 후 예상과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향후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추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기능할 것이다.

2. 교육 활용 전략

생성형 AI는 사이버대학교의 교육 방식과 학습 생태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를 단순히 통제하거나 제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실천 전략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맺으며, 정책적 접근을 반영한 사이버대학교 차원의 교육 실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대학 차원의 생성형 AI 활용 정책 가이드라인 수립이다. 생성형 AI 활용 여부를 개별 교수자나 학생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방식은 일관성

부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차원에서 공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교과 운영 지침과 학칙에 반영한다. 가이드라인에 생성형 AI 활용 가능 영역, 제한 사항, 인용 기준, 부정행위 범위 등이 명확히 규정된다면,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둘째, 교수자 및 학습자 대상 생성형 AI 윤리 교육과 워크숍 운영이다.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도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은 정기적인 생성형 AI 윤리 교육, 워크숍, 온라인 모듈 등을 마련하여 구성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학기 초 오리엔테이션, 전공 기초 과목,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AI의 한계, 편향성, 책임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성형 AI 유사도 분석 및 모니터링 도구의 도입이다. 생성형 AI 활용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기존 표절 탐지 도구에 더해 AI 생성 문장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예컨대 Turnitin의 AI 탐지 기능이나 GPTZero와 같은 별도의 분석 도구를 병행적으로 활용하면, 학습자의 자율성과 윤리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인 검증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UNIST 교수학습센터, 202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3). 다만 기술 의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결과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넷째, 학습 포트폴리오 기반 평가의 확산이다. 단기적 결과물에 의존하는 기존 평가 방식은 생성형 AI에 의한 대리 작성에 취약하다. 이에 따라 학습자의 성장 과정을 다면적으로 기록·평가할 수 있는 학습 포트폴리오 기반 평가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초안-피드백-수정본 제출, 자기 평가 및 반성문 작성, 멀티미디어 활용 등 다양한 형식의 포트폴리오를 통해 학습자의 사고력과 창의성이 드러나며, 동시에 AI 활용 여부 역시 자연스럽게 확인될 수 있다.

생성형 AI의 등장은 단순한 학업 윤리 위기의 원

인이 아니라, 교육 전환의 기회로 바라보아야 한다. 특히 사이버대학교처럼 비대면 기반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고등교육 기관은 새로운 학습 도구의 도입과 동시에 윤리적 활용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새로운 교육의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생성형 AI 활용의 특징과 국내외 교육기관의 AI 활용 사례를 분석하여, 사이버대학 학습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유형 분류, 자가 진단 설문 항목, 교수자 피드백 양식 등 종합적이고 실천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이드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강화하고, 생성형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며, 나아가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한된 사례 분석과 개념적 설계에 기반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국내 다른 사이버대학교 및 전통 대학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대학별 생성형 AI 활용 정책, 교육 효과, 학습자 반응의 차이를 분석하고, 제시된 모델의 일반화 가능성과 한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일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추적 연구가 요구된다. 학기별 생성형 AI 활용 행태, 윤리 인식의 변화, 학습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종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증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셋째, 교수자의 생성형 AI 지도 역량과 교육 전략에 대한 심화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과제 설계 능력, 윤리 교육 내용, 학습자 피드백 방식 등 교수자의 역할을 구조적으로 탐구하는 연구를 병행할 수 있다.

생성형 AI 활용 모델은 기술 도입을 넘어, 윤리와 교육의 본질을 재해석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실천적 탐색의 출발점을 넘어 정책적·교육적 논의의 토대를 제시한다. 생성형 AI는 학업

윤리의 위협이 아니라 교육 혁신의 기회다. 특히 비대면 기반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사이버대학교에서는, 새로운 학습 도구의 도입과 더불어 윤리적 활용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 강지연 (2025).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개발, 미래사회, 15(2), 221-246. <https://doi.org/10.22987/jifso.2024.15.2.221>
- 경북대학교 (2023). 경북대학교 생성형 AI에 대한 가이드라인. <https://www.kbu.ac.kr/kor/CMS/Contents/Contents.do?mCode=MN295>
- 경희사이버대학교. 생성형AI 활용 권고사항. https://www.khcu.ac.kr/sub/content.do?MENU_SEQ=200289800
- 고려사이버대학교 (2023).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학습혁신센터. https://ctl.cuk.edu/cms/FrCon/index.do?MENU_ID=330
- 김성철 (2023). 대학에서의 AI 활용 가이드라인 현황 및 설계 방향 연구, 지식과 교양, 13, 11-44. <http://doi.org/10.54698/kl.2023.13.11>
- 성균관대학교 (2025). 챗GPT 활용 사례 - 교수, 학생활용사례. https://chatgpt.skku.edu/chatgpt/chatGPT_ex_student.do
- 세종대학교 (2025). 생성형 AI 교수 학습 기본 활용 가이드라인. <https://board.sejong.ac.kr/boardview.do?pkid=160936¤tPage=1&searchField=ALL&site=Gubun=19&menuGubun=1&bbsConfigFK=335&sea%E2%80%A6>
- 연세대학교 연구처 연구윤리센터 (2024). 생성형AI 활용 가이드라인, ver1.0. https://yure.yonsei.ac.kr/admin/info/adminBookDetail.do?book_seq=65
- 이수환, 송기상 (2023).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탐색,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26(6), 15-27. <https://doi.org/10.32431/kace.2023.26.6.002>
- 인제대학교 (2023).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활용 가이드라인. <https://cms.inje.ac.kr/bme/community/notice.do?mode=download&articleNo=36217&attachNo=28601>
- 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 (2025). 생성형AI활용 안내. <https://aiguide.cau.ac.kr/am/am-1.php>
- 최무이 (2025). 2024년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https://spri.kr/posts/view/23880?code=sw_reports&s_year=&data_page=1
- 한양사이버대학교 (2023). 생성형 AI 교수-학습 활용 프로토콜. <https://www.hycu.ac.kr/user/unGdInfo/go-Main/evalu04/index.do>
- UNIST 교수학습센터 (2023).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 울산과학기술원. <https://heyzine.com/flip-book/a9b98c0d61.html#page/1>
- Arizona State University (2023). *AI Usage and Academic Integrity Guidelines*, ASU Online. <https://ai.asu.edu/policy-and-resources>
- Coursera (2023). *Responsible AI Use in Learning Environments*, Coursera Policy Center. <https://www.coursera.org/policies/ai-policy>
- edX (2023). *edX Honor Code and AI Use Policy*, edX.org. <https://www.edx.org/edx-honor-code>
- Floridi, L., Cowls, J. (2019). A Unified Framework of Five Principles for AI in Society, *Harvard Data Science Review*, 1(1).

- <https://doi.org/10.1162/99608f92.8cd550d1>
- Hibbert, M., Altman, E., Shippen, T., & Wright, M. (2024). A framework for AI literacy. *EDUCAUSE Review*.
<https://er.educause.edu/articles/2024/6/a-framework-for-ai-literacy>
- <https://ascode.osu.edu/distance-learning-curriculum/crafting-policy-student-use-artificial-intelligence>
- Hui Wang, Anh Dang, Zihao Wu, Son Mac (2024). Generative AI in Higher Education: Seeing ChatGPT Through Universities' Policies, Resources, and Guidelines, *Computers and Edu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7.
<https://doi.org/10.1016/j.caeai.2024.100326>
- OECD (2021), *AI and the Future of Skills, Volume 1: Capabilities and Assessments*,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5ee71f34-en>
- Ohio State University (2023). *Crafting Policy for Student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 OpenAI (2023). *ChatGPT Usage Guidelines for Educators*, OpenAI.
<https://openai.com/education>

투고일자: 2025. 8. 30.

심사일자: 2025. 9. 25.

게재확정일자: 2025. 9. 29.

A Study on Generative AI Application Guidelines for Cyber University Students

Sung Tae Lee

Jongwon Lee

Seoul Cyber University

The rapid proliferation of generative AI tools in the remote learning environments of cyber universities has enhanced learning efficiency, yet it also presents challenges such as diminished academic integrity and weakened self-directed learning. To address this dilemma, the present study examines learners' AI usage patterns and compares AI-related policies and guidelines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universities in order to propose a model for ethical and autonomous use. The findings indicate that cyber university learners make extensive use of AI in essay writing and discussion board participation, and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instrumental, dependent, and defensive—based on the extent of their reliance. Furthermore, a review of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and university guidelines highlights several critical elements: explicitly defining the scope of AI use within syllabi, ensuring transparent disclosure of its application, and strengthening both critical thinking and AI literacy education. Building on these insights, the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clear guidelines and ethical standards for both learners and instructors. Finally, it proposes the development of a survey instrument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that integrate these research findings.

Keywords: Generative AI, Cyber University, Learning Ethics, AI Literacy, Self-directed Learning